

## 조선혁명군정부 외교부장 金斗七 1주기 제문

— 1920~1930년대 만주 독립운동을 생생하게 증언하다 —

張世胤\*

### 1.

한국근현대사, 특히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하나는 주요 독립운동단체나 인물, 사건, 특정 주제나 현안·이슈 등에 관한 운동 당사자들의 기록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sup>1)</sup> 이는 일제나 중국의 봉건군벌 정권, 괴뢰 ‘만주국’ 당국 등의 직간접적 압력과 탄압으로 기록 보존이 불가능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일본 정부나 산하 기관·단체, 관헌이나 개인 등 탄압주체 측의 기록을 활용하여 이 지역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왜곡된 연구현실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장

1) 1930년대 중국 동북지역(만주)에서 활동한 조선혁명당·군, 국민부 등에 대한 회고록은 桂基華, 『三府·國民府·조선혁명군의 독립운동 회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 金學奎, 『백파자서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독립기념관, 1988이 있다. 1940년대 전반기 기록으로는 조선혁명군 참모장을 지낸 김학규가 한국광복군에 재직 시 기관지 《光復》에 투고한 몇 편의 회고록이 있다.

필자는 2001년 9월 18일 전후 중국 瀋陽에서 열린 ‘9·18사변(일명 만주사변)’ 7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관련 주제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회의에 청중으로 참가한 김두칠 선생의 손자 金千律 씨를 만나 그의 조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김천을 씨에게 김두칠 선생의 제삿날에 서세명 선생이 낭독한 제문의 사본을 얻게 되었다.

이 제문은 김두칠의 사후 1주년인 1947년 음력 5월 26일[양력으로는 7월 14일(월요일)]<sup>2)</sup> 제사 때 제문으로 봉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필자가 살펴보니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20세기 전반기 만주(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두칠 선생의 애국·애족정신과 투철한 독립운동 헌신의 실상을 매우 감동적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에 이 제문을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연구자와 교육자는 물론, 일반 독자 여러분에게도 공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필자는 20여 년 동안 在滿 조선혁명당과 국민부, 조선혁명군 등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한때 ‘정부’를 표방했던 남만주 韓人 僑民의 자치조직인 국민부와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등 거의 10여 년 동안 독자적 조직과 이념, 명분을 내세우며 치열하면서도 끈질기게 일본제국주의 침략세력에 항전하며, 한편으로는 진보적 구호·강령을 표방하면서 반봉건투쟁도 진행했던 이 ‘자랑스러운’ 민족운동 조직과 그 관련 인물, 이와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해 아직도 뚜렷한 사실 규명과 자신 있는 업적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항상 제대로 매진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나름대로의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문을 다시 읽어보니, 김두칠과 서세명을 비롯한 남만주 독립운동 세력의 뜨거운 민족애와 강렬한 민족주의 이념에 입각한 일련의 독립운동의 흐름, 그리고 중국현대사의 片鱗까지도 알 수 있는 귀중한 문서임은 물론, 개인이나 일상사·생활사·心性史라는 관점에서든 매우 흥미 있는 관심을 가질 만한 귀중한 정보와 의미를 담고 있는 사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2) 韓甫植 編, 『韓國年曆大典』,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7, 1947쪽.

이에 학술지 지면에 소개하는 기회를 갖고 1910년대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의 중국 동북지역, 특히 남만주 일대에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재만 조선혁명당과 국민부, 조선혁명군 세력의 활동과 그러한 일련의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金斗七의 생애를 간단히 일별하고, 그의 생애를 간략히 정리한 제문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70~100여 년 전의 민족수난사 이주사 독립운동사의 한 부분을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 2.

소개자료인 김두칠 1주기 제문의 작성자 徐世明에 대한 인적 사항은 현재 상세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단편적 기록을 통해 일부의 모습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서세명의 본관은 달성(대구), 호는 正海이다. 경상북도 출생으로 추정되며, 1910년 전후 시기에 중국 요녕성 新賓(興京)縣 紅廟子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1929년 국민부 성립 직후 홍묘자 總管을 맡아 그곳의 독립운동을 적극 후원, 주도하였다. 국민부에서는 그가 잡화점을 경영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홍경현(1929년 7월 29일 新賓현으로 개칭했다가, 1933년 10월 다시 홍경으로 바뀌고, 1945년 8월 이후 또 신빈으로 개칭됨)<sup>3)</sup> 읍내로 파견하여 정미소를 운영케 하였다. 이후 그는 홍경(신빈) 지역의 정보 수집과 군량 제공 등 군수지원 업무를 책임지게 되었다. 서세명은 홍경현 중심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인 양씨 지주집의 동쪽 사랑채를 빌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sup>4)</sup>

양씨 지주가는 사방이 논과 옥수수밭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양지주 또한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장소로 적합하였다. 이에 따라 1932년 1월 19일(음력 1931년 12월 12일, 화요일) 서세명의 집에서 남만주 독립운동의 영도기관인 조선혁명당과 한인 교민 자치조직이

3) 房守志 主編, 『新賓滿族自治縣志』, 瀋陽: 遼瀋書社, 1993, 15~17쪽.

4) 김순화, 『홍경사건』, 『불씨』(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2), 북경: 민족출판사, 1995, 385쪽.

<그림 1> 서세명 가옥 입구(2014년 6월 14일 촬영)



\*현재 중국 요녕성 신빈현 읍내에 남아 있는 서세명의 집. 가운데 보이는 가옥에서 1932년 1월 19~20일 조선혁명당과 국민부, 조선혁명군 간부들이 회의하던 도중 일본 경찰의 급습으로 이호원과 김보안 등 핵심간부 6명이 체포되는 불상사가 있었다.

자 政府인 국민부, 조선혁명당 산하 무력이자 독립군, 교민 자위조직인 조선혁명군의 핵심간부 20여 명이 모여 향후 진로를 둘러싼 중요한 회의를 열게 되었다. 회의에서는 1931년 ‘9·18사변(일명 만주사변)’ 이후 날로 강화되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 당·정·군의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sup>5)</sup>

저녁 무렵에 회의가 끝난 뒤 양하산·고이허·양세봉 등은 귀가하였으나, 조선혁명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당수) 李浩源, 조선혁명군 사령관 金保安(본명 金俊澤, 일명 金寬雄), 부사령관 張世湧(본명 張元濟), 국민부 공안부 집행위원장

5) 김순화, 『홍경사건』, 385쪽.

李鍾乾(본명 李鐘淳), 조선혁명군 衛隊[경호대]長 李奎星·중대장 田雲鶴 등 핵심간부들은 이튿날 새벽까지 그곳에 머물며 회의를 지속하였다.<sup>6)</sup> 그러나 이때 친일단체인 保民會의 한인 밀정인 白夢良이 이들의 회의 소식을 중국 신빈현 당국에 밀고하였다. 일본의 중국동북 침략 이후 친일적 태도를 보이고 있던 東邊道鎮守使 于芷山 관할 아래 있던 신빈현 公署는 通化 주재 일본영사관에 이 소식을 통보하였고, 일본영사관 경찰 30여 명과 신빈현 경찰 100여 명이 합세하여 1월 20일 새벽에 서세명의 집을 포위하였다. 결국 이들은 모두 일경에 체포되고 말았다. 이들은 통화 일본영사관에 압송된 뒤 다시 국내로 이송되었는데,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신의주감옥에 투옥되어 큰 고초를 치러야 했다.<sup>7)</sup> 이를 ‘신빈사건’, 혹은 ‘홍경사건’이라고 한다. 일본 경찰과 신빈현 당국은 이 해 2월까지 남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혁명당·군과 국민부 관계자 70여 명을 검거하는 대탄압을 벌여 한민족의 독립운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sup>8)</sup>

‘신빈사건’ 당시 서세명의 행적은 잘 알 수 없다. 다만 그는 자신의 집에서 회의를 하던 조선혁명당·군, 국민부 핵심요인 6명이 체포되고, 연달아 조선혁명군 대원 10여 명이 체포된 이후 친일파로 지목되었던 듯하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부와 조선혁명군에서 白夢良·崔日和·朴英武와 함께 서세명을 ‘친일한인(조선인)’으로 지목하고, ‘사형선고(또는 사형 경고)’를 내린 뒤 처단하려 했던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sup>9)</sup> 실제로 백몽량과 최일화는 국민부 측에서 ‘친일조선인’으로 지목하고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빈현을 탈출하여 撫順으로 간 뒤, 일제 측에 귀순하여 국민부 등 민족운동 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10)</sup>

6) 김순화, 『홍경사건』, 385~386쪽.

7) 장세운, 『신빈사건』,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 5, 독립기념관, 2004, 298~299쪽. 투옥된 김보안(김준택)은 1935년 10월 22일 감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8) 장세운,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6~30쪽.

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엮음, 『不逞團 國民府 잔당의 행동상황의 건(昭和 7年 4월 6일자 關東廳 경무국장 발신 외무차관 수신 通報要旨)』,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군전투사 자료집), 고려서림, 1984, 637~639쪽.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엮음, 『독립운동사자료집』 10, 638쪽.

한편, 이 사건 이후 서세명의 행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32년 3월 1일 괴뢰 ‘만주국’이 성립한 이후 신빈현 읍내 지역은 사실상 만주국 당국과 일본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본거지가 되었으므로, 서세명은 노골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하거나 후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간접적으로 일제의 탄압을 피해 깊은 산골짜기나 벽지로 은신하여 항일투쟁을 지속하고 있던 김두칠 등 조선혁명당 계열 인사들과 모종의 협력이나 후원, 연계를 도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이 제문을 통해서 서세명과 김두칠이 庚申年(1920년) 7월 15일(양력 8월 28일, 토요일) 경술국치 1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요녕성 桓仁縣 남쪽의 大荒溝에서 뜻을 같이하는 동지 李成達·姜壽永·金奭鴻 등과 함께 조국의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에 헌신하며,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굳은 맹세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誓同生死盟約].

그러나 서세명은 ‘신빈(홍경)사건’ 이후 독립운동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일본 세력권에 포섭되어 생활했던 듯하다. 때로는 양진영을 오가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 같다. 그 근거는 1936년 7월 김두칠의 아들 김익수가 홍경현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서세명이 나서서 여러 경로를 거쳐 그를 석방한 사실, 또한 이 무렵 김두칠의 가족을 여러 차례 보호해주고, 국내로 피신을 권유한 사실, 1938년 12월 말 김두칠 가족이 평안북도 자성군에서 돌아올 때 김두칠과 함께 그들을 마중 나와 홍경현 제2구 영영촌에 안치한 사실, 그리고 1938년 7월 김두칠이 홍경현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를 구출하기 위해 한·중인 유지들과 함께 갖은 노력을 다하여 결국 1940년 保釋으로 나오게 한 사실을 들 수 있다.<sup>11)</sup> 하여간 서세명의 친일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김두칠과 그의 가족에 대한 서세명의 헌신은 정말 특기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서세명은 1945년 일제의 패망 이후 신빈현 일대 한인사회에서 주목되는 정치·사회적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다.

서세명은 이 제문에서 “조국 위한 선열 熱精 許多혁명 우리 동지 피 흘려서 結晶으로 乙酉(1945년) 8월 15일에 강도왜놈 항복하자 세계적으로 약소민족

11) 김양, 『갈림길에서 굴하지 않은 사람들-김두칠』, 『압록강 유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삼양: 료녕민족출판사, 2001, 581~583쪽.

우리 조선 백의동포 왜놈철망 벗어나서 자유해방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밝히고 있다. 이는 적극적 항일무장투쟁 등 독립운동의 결과 우리민족이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다는 주체적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매우 주목 되는 내용이다.

### 3.

김두철의 본명은 金哲濟, 이명은 金滿·金道七이라고도 한다. 자는 文必이며, 호는 雲亭이다. 1893년 경상북도 청도군 梅田面 龍山洞에서 태어났다.<sup>12)</sup> 일제 정보자료는 그의 나이나 출신지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김두철이 체포되기 전까지 비밀리에 철저히 항전했으므로, 그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자연스런 결과가 아닌가 한다.<sup>13)</sup>

김두철은 1911년, 불과 19세 때 안동 李相龍 가문의 남만주 이주시 함께 망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通化縣 哈尼河 신흥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요녕 성 桓仁縣 南荒溝에 거주하며 한인 대중 속에 들어가 항일독립운동과 계몽운동을 주도하였다.<sup>14)</sup> 환인현에는 경남 밀양출신의 윤세복·윤세용 형제가 세운

12) 김양, 『압록강 유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579쪽.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매전면 龍淵洞과 中山洞을 합쳐 龍山里라고 하였다.

13) 1937년 전반기에 42세(경북 경산)설[司法省 刑事局(第5課)], 『思想情勢視察報告集(其の四)』(滿洲に於ける共產主義運動), 1938; 社會問題資料研究會 編, 『社會問題資料叢書』第1輯 思想研究資料(特輯), 京都: 東洋文化社, 1973 재간, 82쪽], 김두철의 본적이 경북 안동군, 나이는 1920년경 30세가량으로 파악된 자료(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무관학교 학생 모집사건』, 『국역 고등경찰요사』, 선인, 2010[원본은 경상북도 경찰부, 1934년 간행], 370쪽)가 있다. 또 일부 자료에는 1935년 10월경 그가 48세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滿朝鮮獨立運動秘密結社(『朝鮮革命軍政府 組織體系』別表)』, 『滿洲及支那に於ける地下秘密團體に就いて』, 三省省公署 警務廳特務科 編, 하얼빈, 1936, 66~67쪽). 한편 김두철이 조선혁명군 핵심 지휘관의 일원이었던 朴大浩와 같은 경북 청도 출신이라는 증언도 있다(1930년대 초 조선혁명군에서 활동했던 경북 청도 출신 崔鉉九 손자 崔喜奉의 증언).

14) 김양, 『압록강 유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579쪽.

민족학교인 東昌學校 등의 영향이 있어 활동에 유리했다. 그는 1920년 전후 시기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세력과 연계하여 경북 안동 등지를 왕래하며 한인 청년들을 모집하였다.<sup>15)</sup> 이들을 신흥학교에 입교시켜 군사교육을 실시한 뒤, 국내외에 파견하여 군자금 모집과 각종 독립운동을 획책하는 등 1920년 전후 시기에 국내외에서 무장독립전쟁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였다.<sup>16)</sup>

김두칠의 실제 신흥학교 생도 모집 관련 사실은 일본 경찰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즉 1920년 일본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던 소위 ‘무관학교 학생모집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경북 선산군 해평면이 본적지로 되어 있는 崔載華는 남만주 유하현 삼원포 일대의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하여 군사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독립전쟁을 구상하고, 인재들을 상하이(上海)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 보내 적극적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후 그는 식민지 조선 내에서 청년 권유·모집의 임무를 맡아 裴昇煥·金斗七·康壽男 등을 권유하여 임시정부 측과 연계시키고, 이들에게 장정모집의 임무를 담당케 하였다.<sup>17)</sup>

이후 김두칠은 최재화와 함께 金鍾燦(본적은 경남 동래군 기장면, 서울 거주)에게 무관학교 입교를 권유하여 남만주 유하현 삼원포 소재 군정부(서로군정서) 산하 무관학교인 신흥학교 제4기생으로 입교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특히 김종엽은 동지 權元河와 함께 신의주를 건너 중국 안동현으로 간 뒤, 다시 삼원포 부근의 신흥학교로 갔다. 그는 1919년 8월 이 학교 제4기생으로 입학하여 이듬해 1월 하순 이 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 2월 조선(서울)에 돌아왔다. 김종엽은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동단 총재로서 이 조직을 이끌고 있던 金嘉鎮이 발행한 독립운동 자금 모집 수령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동지들을 포섭하고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앞장서던 중 1920년 9월경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sup>18)</sup>

주목되는 사실은 일경에 따르면 최재화·김종엽·권원하 등은 조선독립전쟁이

15) 류시중·박병원·김희곤, 『국역 고등경찰요사』, 368~370쪽.

16) 류시중·박병원·김희곤, 『국역 고등경찰요사』, 368~370쪽.

17) 류시중·박병원·김희곤, 『국역 고등경찰요사』, 368~370쪽.

18) 류시중·박병원·김희곤, 『국역 고등경찰요사』, 368~370쪽.

있게 되면 이에 참가할 준비로 실제 군사교육을 받았다는 점이다.<sup>19)</sup> 한편 당시 경상북도 경찰부의 정보에 따르면 김두철의 본적은 경북 안동군, 나이는 1920년 경 30세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었다.<sup>20)</sup>

1919년 3·1운동이 거족적으로 전개되고, 그 소식이 남만주 지역에도 전파되자 한인 교민들이 거주하는 곳곳에서 항일시위운동이 격화되었다. 환인현에서는 국내 3·1운동의 소식을 전해들은 한인 교민 1,000여 명이 환인현 각지의 한인 마을을 중심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항일시위운동 등 대규모 집회를 거행하였다. 특히 최대 규모 시위가 협파구(夾皮溝)에서 전개되었는데, 단장 黃永瑞와 김두철 등의 주도로 500여 명의 남녀노소 한인들이 결집하여 항일구호를 제창하며 시위행진을 벌여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sup>21)</sup>

김두철은 1922년 5월 환인현의 애국지사들과 함께 환인지역 ‘조선국민대표 축성회’를 발기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등 큰 활약을 하였다.<sup>22)</sup> 그는 이 해에 대한통의부에 참가하여 교통부의 환서(桓西: 桓仁縣 서부)총관소 총관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桓仁縣 서부지역 통의부의 활동 및 관련 한인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과 통신·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서총관소에는 총관 밑으로 檢務監 1명, 검무원 2명, 서계와 서기 각 1명이

19) 류시중·박병원·김희곤, 『국역 고등경찰요사』, 369쪽.

20) 류시중·박병원·김희곤, 『국역 고등경찰요사』, 370쪽.

21) 桓仁縣民族事務委員會 朝鮮族志編纂小組 編, 『桓仁縣朝鮮族志』(내부자료), 本溪, 1988, 38쪽 및 김양, 『압록강 유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579~580쪽. 환인현 등 남만주지역 3·1운동에 대해서는 오세창, 「만주 한인의 3·1독립운동」,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 탐구당, 1992 참조. 환인현과 인접한 홍경(신빈)현에서는 환인지역보다 더 빠른 시기에 항일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旺淸門, 紅廟子 등지에서는 국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3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간헐적으로 항일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왕청문의 약 400명의 한인들은 1919년 3월 21일 한인 교회당에 모여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의 구호를 외치며 항일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홍경현 당국은 경찰과 保甲隊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이를 탄압, 시위군중 4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초래되었다. 이 해 4월, 5월 초에도 홍표자 興東학교 교장 李世日의 주도로 이 학교 학생과 한인 농민들이 대거 참가한 항일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新賓滿族自治縣朝鮮族經濟文化交流協會·新賓滿族自治縣史志辦公室 編, 『新賓朝鮮族抗日鬪爭史略』, 新賓, 1995, 6~7쪽).

22) 김양, 『압록강 유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580쪽.

배치되었다.<sup>23)</sup> 1924년에는 통의부를 흡수하여 발족한 남만주 독립운동 통합조직 참의부에 참가하여 환인지방 총관, 환인지방 참의장으로 활동하였는데, 통의부와 의군부, 참의부와 국민부 등 독립운동 단체들이 상호 대립·갈등을 겪을 때 여러 단체들의 단결과 3부의 통합을 외치며 적극 중재에 나서는 등 온후한 성품으로 동지들 사이에 신망이 높았다.<sup>24)</sup>

1926년 김두철의 부친이 온 가족을 데리고 김두철이 있던 환인현으로 건너왔다. 이후 그의 처와 12살 된 이들은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립군 부대의 통신원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1929년吉林에서 남만주 독립운동 통합조직으로 國民府가 성립한 뒤 김두철은 국민부의 주요 간부로 활동하였고, 교민 자치조직인 국민부와 조선혁명군 독립군을 영도하는 독립운동 지도정당 조선혁명당에서도 큰 활약을 하였다. 일제의 정보자료에 따르면 그는 1933년에 국민부 공안부장 겸 公安위원, 외교부장겸 외교위원을 맡으면서,<sup>25)</sup> 동시에 조선혁명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자치위원회 위원을 맡은 것으로 파악된다.<sup>26)</sup>

특히 주목되는 점은 1934년 봄, 楊靖宇(漢族, 본명 馬常德)·李紅光(韓人)이 이끄는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 계통의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이 신빈(홍경)에 진입한 뒤, 조선혁명군과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독립사)은 홍경현 四道溝大堡에서 제1차 연합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이때 김두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sup>27)</sup>

1934년에는 조선혁명당 중앙집행위원이 되어 조선혁명군 사령관 양세봉의 유력한 참모로서 활동하였다. 특히 양세봉이 일제의 흉계로 그해 9월 희생되자 그의 추도회와 장례식을 주도하였으며, 1936년에는 조선혁명군정부(1934년 11월 조선혁명군과 국민부가 통합하여 성립) 총사령부 위원, 군법처 처장, 군사

2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엮음, 『독립운동사자료집』 10, 540쪽 및 김양, 『압록강 유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5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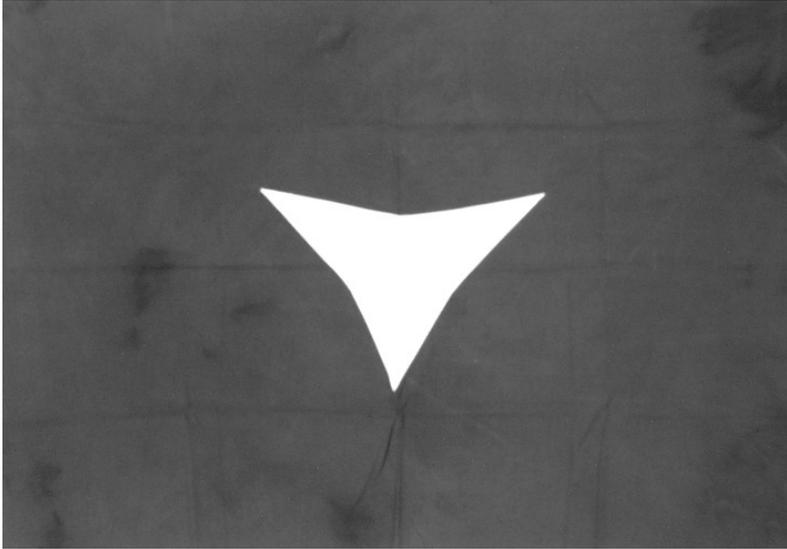
24) 김양, 『압록강 유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580쪽.

25) 滿鐵 鐵路總局, 『朝鮮獨立革命黨とは何か』, 《滿鐵調査月報》 1934년 3월호, 116쪽.

26) 『昭和8年 滿洲に於ける不逞鮮人の動靜』, 『外務省警察史 在滿大使館(第1)』 국회도서관 소장 일본외무성문서 제책본 제2270권, 3148~3150쪽.

27) 김양, 『압록강 유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581쪽.

<그림 2> 조선혁명군기(독립기념관 복제 소장)



\*조선혁명군이 사용하던 깃발로, 조선혁명군은 1929년 12월 결성되어 1938년 9월경까지 남만주 지역의 대표적 독립군으로 활약하였다. 삼각형 모양은 당(조선혁명당)·정(국민부)·군(조선혁명군)을 상징한다.

부장 등의 요직을 담당하여 만주지역 최후의 독자적 독립군인 조선혁명군의 항전을 주도하였다.<sup>28)</sup> 일제 당국은 김두칠과 그의 가족들을 체포하려고 늘 감시의 눈초리를 기울리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36년 7월 김두칠의 아들 김익수가 흥경현에 있는 집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이때 서세명이 나서 여러 경로를 거쳐 김익수를 석방시켰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김두칠의 가족은 일제의 추적을 피해 흥경에서 국내 평안북도 자성군으로 갔다가, 다시 흥경현으로 재이주하는 등 숏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930년대 후반 조선혁명군은 남만주(서간도) 일대에서 압록강을 넘나들며 치열한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증언에 따르면 김두칠 등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깊은 산골짜기나 동굴 속에

28) 조선혁명군정부에 대해서는 장세운, 「조선혁명군정부 연구」,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11, 1997 참조

은신하면서 나무껍질·풀뿌리로 연명하면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항전을 지속했다고 한다.<sup>29)</sup>

그러나 일제와 만주국 당국 등의 거듭된 포위공격과 회유공작 등 탄압으로 도저히 독자적 생존이 어렵게 되자, 조선혁명군 第1師 사령 韓劍秋(본명 崔錫鏞, 황포군관학교 출신) 등 51명의 대원들은 결국 1937년 4월 일제 당국에 투항하고 말았는데,<sup>30)</sup> 김두칠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중과부적, 역부족으로 조선혁명군(정부)의 군사부장을 맡고 있던 그도 결국 1938년 6월 일정에 체포되어 투항하고 말았다.<sup>31)</sup> 그 직후 김두칠은 일경에 연행되어 만주국 제14감옥(興京縣 소재)에 투옥되어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이때 흥경현에 거주하고 있던 서세명·서세호 등 수십 명의 한인 교민들과 李德奎·黃喜發 등 漢族 유지들까지 나서 김두칠 구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1940년 김두칠은 保釋으로 석방되어 출옥하였으나,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 때까지 감시를 받아야 했다.<sup>32)</sup>

일제의 패망 이후 김두칠은 흥경(신빈)현에서 조선교민회 주임·조선인민주동맹 주임 등의 직책을 맡아 활동하다 1946년 음력 5월 26일(양력 6월 25일, 화요일) 고문 후유증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향년 54세였다. 서세명의 제문에 따르면 新賓縣 第2區 姜家街에서 별세한 것으로 전한다. 신빈현에서는 여러 유지와 간부, 구 독립운동 관계자, 한인 교민 등 100여 명이 35년간 남만주에서 항일투쟁을 지속한 김두칠의 추도회를 열고,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

29) 김양, 『압록강 유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582쪽.

30) 吉林省公安廳公安史研究室·東北淪陷十四年史吉林編寫組 編譯, 『滿洲國警察史』(내부자료), 장춘: 1990, 318쪽.

31) 吉林省公安廳公安史研究室·東北淪陷十四年史吉林編寫組 編譯, 『滿洲國警察史』, 318쪽. 중국 기록에 따르면 김두칠은 변절자 黃正性的 밀고로 체포되었다고 한다(김양, 『압록강 유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582쪽).

32) 김양, 『압록강 유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582~583쪽. 김두칠이 출옥할 때 감옥에서의 고문과 악형으로 몸은 만신창이었다고 한다. 혹형으로 허리를 다쳐 꼬추가 되었고, 왼쪽다리는 골절이 되어 절름발이가 되었으며, 오른손의 네 손가락은 고문으로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김양, 『압록강 유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583쪽). 한편 김두칠이 중국 길림성의 집단농장에 수용되어 그곳에서 일했다는 증언도 있다[조선혁명군 소대장 金龍泰의 아들 金玉石의 증언(2016년 2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실에서 청취)].

하였다.<sup>33)</sup>

#### 4.

이 제문에서는 환인 3·1운동 이후 김두철이 ‘朝僑公會’를 조직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 이 단체는 ‘韓僑公會’로 알려졌다. 한교공회는 중국 요녕성 桓仁지역의 3·1운동 직후인 1919년 7월 환인현 橫道川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로서 孫克章·孫炳憲·獨孤旭·李天民(본명 李世永) 등이 부근의 한인 청년들을 규합하여 조직하였다. 주요 구성원들이 1922년 8월 말 남만주 독립운동의 통합조직인 대한통의부에 가담하였고, 이후 참여부가 결성되자 이에 합류함으로써 해체되었다.<sup>34)</sup>

김두철은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 신빈현에 있던 興京合成公司라는 이름의 정미소를 경영하여 국민부와 조선혁명군 등을 후원하였으며, 1929년 후반기에는 국민부 興京地方公所 警務집행위원을 맡아 국민부의 경비와 치안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sup>35)</sup> 또한 1933년경 김두철은 조선혁명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자치위원회(국민부) 중앙위원 등의 주요 직책을 맡아 조선혁명당의 이론·이념 주도 및 국민부의 남만주 한인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행정 등의 주요 업무를 맡아 항일투쟁 및 반제·반봉건운동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sup>36)</sup> 그리고 1935년에는 조선혁명군과 국민부가 통합되어 성립한 조선혁명군정부의 외교부장 겸 참모(장)의 중책을 맡아<sup>37)</sup> 일제의 거센 탄압으로 난관에 부딪힌 조선혁명군 정부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일제, 특히 만주국 警務當局의 정보에 따르면 김두철은 조선혁명군 정부의

33) 김양, 『압록강 유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583쪽.

34) 소현숙, 『한교공회』,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310쪽.

35) 司法省 刑事局(第5課), 『思想情勢視察報告集(其の四)』, 82쪽.

36) 장세운,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2009, 95~96쪽.

37) 司法省 刑事局(第5課), 『思想情勢視察報告集(其の四)』(滿洲に於ける共產主義運動), 82·86쪽.

외교부장으로 재직 중인 1935년 10월 초에 이미 중국 南京 등지로 密派된 조선혁명당 ‘南京 및 중국본부’의 특별주재원인 金學奎(호는 白派, 일명 金東耳) 및 이 조직 소속 ‘남북연락원’ 崔東昨(호는 義山) 등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중국 관내 독립운동 세력과 만주 독립운동 세력의 연계와 협력 등 중요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sup>38)</sup>

1936년 2월 10일에 열린 조선혁명군정부의 제1회 議事會(의장은 高而虛)에서 김두철이 의사회 의장과 정치부장에 선출되었는데, 의장을 맡았던 고이허는 정치부장을 사임하고 중앙사판소의 査判을 맡았다.<sup>39)</sup> 의사회는 일종의 ‘국회’였고, 중앙사판소는 ‘대법원’ 격이었다.

1937~1938년경 조선혁명군은 일본 및 괴뢰 만주국 당국 및 군경 등의 탄압으로 사실상 붕괴 위기에 직면하였다. 1935~1937년 초까지 함께 연대해서 ‘中韓항일동맹회’를 조직, 일제와 투쟁했던 王鳳閣이 1937년 3월 허순 체포되어 4월에 총살되고 말았다. 이후 중국의용군 측의 후원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후 조선혁명군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계열의 東北抗日聯軍과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김두철은 조선혁명군 총사령 김활석 등과 함께 끝까지 독자적 조직을 유지하며 완강하게 일제와 투쟁해야 한다는 완고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위원 朴大浩·崔允龜·趙化善 등은 결국 1938년 2월경 중국인 楊靖宇가 영도하던 동북항일연군에 가입하여 ‘한인 獨立師’를 결성했다가 그해 8월이나 11월경 ‘동북항일연군 警衛旅’와 제1로군 제2방면군 등으로 재편성, 흡수되었다.<sup>40)</sup>

하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이 제문에는 김두철이 조선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군에 합류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회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과 괴뢰 ‘만주국’의 붕괴 이후, 중국 동북지역은

38) 『在滿朝鮮獨立運動秘密結社(「朝鮮革命軍政府 組織體系」別表)』, 『滿洲及支那に於ける地下秘密團體に就いて』, 三江省公署 警務廳特務科 編, 하얼빈, 1936, 66~67쪽.

39) 服部昇治, 『新派秘第342號 昭和12年6月19日 朝鮮革命軍ノ狀況ニ關スル件』(日本山口縣 소장 林家文書), 823~825쪽.

40)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1945)』, 아세아문화사, 1999, 416~417쪽.

1949년 말까지 치열한 국공내전이 벌어졌다. 그런데 1945년 8월 초순부터 소련군과 함께 중국 동북지역에 진군한 周保中 등의 동북항일연군은 ‘東北民主聯軍’ 등으로 확대 개편되며 중국공산당군인 八路軍, 조선의용군(1·3·5지대) 등과 함께 신속히 중국 동북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sup>41)</sup>

특기할 만한 사실은 신빈·환인현 등 남만주지역은 몇 차례 공방전이 있었지만, 비교적 일찍 중국공산당 세력이 중국국민당 세력을 몰리치고 장악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신빈·환인 지역에서는 1946~1947년경부터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특히 신빈현의 경우 1947년 6월 2일 중국공산군이 장악한 후, 중국공산당 신빈현위원회와 신빈현 ‘인민정부’가 구성되어 토지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이듬해 1월에 토지의 우열과 인구의 다소 여부에 따라 토지를 농민들에게 고르게 분배하는 놀라운 조치를 취하였다.<sup>42)</sup> 환인현의 경우 1946년 6월 상순에 벌써 ‘중국공산당 寬甸(寬甸·桓仁)지방위원회’의 지시로 減租減息운동과 分地分苗운동이 전개되었다.<sup>43)</sup> 1947년 6월 1일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동북민주연군이 중국국민당군을 격파하고 환인현 전 지역을 장악하였는데, 그 직후인 7월 중순부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馬圈子·五里甸子 등지에서부터 토지개혁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44)</sup>

김두칠 제문에 나오는 ‘토지개혁’이나 ‘耕者有其田原則’ 등의 용어는 바로 이 시기에 김두칠과 서세명 등 구 조선혁명당 세력이 중국공산당 측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漢奸(친일 중국인)·惡霸, 지주 숙청 등의 방법으로 일련의 토지개혁운동에 앞장섰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제문은 김두칠 사후 1주기인 1947년 음력 5월 26일(양력 7월 14일, 월요일) 그의 동지이자 義弟인 서세명이 추도(제사)장소에서 김두칠을 깊이 추모하며 봉독한 제문이다. 風餐露宿하며 조국과 민족의 독립, 해방을

41) 장세윤, 『해방 전후 시기 만주지역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동향』, 《한군 근현대사연구》 42, 2007, 79~80쪽.

42) 房守志 主編, 『新賓滿族自治縣志』, 18~19쪽.

43) 桓仁縣地方志編纂委員會 編, 『桓仁縣志』, 17~18쪽.

44) 桓仁縣地方志編纂委員會 編, 『桓仁縣志』, 18쪽.

위해 헌신하다가 뜻한 바 이상세계의 실현을 완수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하직한 망자에 대한 깊은 추모의 감정과 통절·절절하면서도 아쉬워하는 비애감을 느낄 수 있다. 제문은 일반적으로 망자에 대한 과장이나 미화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이 제문은 거의 사실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독자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란다.

## 5.

1945년 11월 하순 중국에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김구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은 이 해 12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환영대회에서 순국선열을 위한 『先烈紀悼追念文』을 봉독하였다. 이 제문은 명문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정인보가 기초하여 대독하였다. 그 일부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로부터 지사는 一死를 가볍게 여기나니, 구태여 생을捨하고 義를 취하신 데 향하여 비애의 細情을 붙이고자 아니하며, 더욱이 모두 광복의 元功이신 바에 무슨 유한이 있으리까마는, 같은 선열이시면서도 혹 顯著하여 天壤에 혁혁하기도 하고, 혹 인멸하여 名字조차 물을 길이 없기도 하니, 전을 幸이라 하면 후어찌 불행이 아니리까. 하물며 無人窮途에서 枯卉 위에 羈縲를 굴리어 鬼火 번득이고 烏鵲이 亂飛할 뿐으로, 생전을 且置하고 사후까지 蕭條한 이가 많음을 어찌 하리오. 설사 이렇게까지는 아니할지라도 軍行旅進하다가 함몰한 이들은 누구며, 幽繫歷久하다가 瘦死한 이들은 누구뇨. 다수로 인하여 特著가 없는 거기에 日星과 並垂할 烈蹟이 많으시려니 逝者! 아무리 浩然타 한들 살아 있는 우리야 어찌 돌아보아 슬프지 아니하리오.<sup>45)</sup>

정인보의 이 추념문은 만주 독립운동에 헌신했다가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김두칠 등 순국선열들을 위한 장중하면서도

45) 김구 지음·도진순 엮고 보탬, 『백범어록』, 돌베개, 2007, 401~402쪽.

비장한 헌사라고 생각된다. 이번에 소개하는 『서세명 봉독 김두칠 1주기 제문』과 함께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다소 장황한 서술이 되었다. 하지만 위에 소개한 김두칠·서세명의 행적과 일부 제문 내용을 보면서 만주 독립운동에 헌신하여 살신성인한 유명·무명의 애국지사와 선열들의 고투·번뇌,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기념하고,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를 깊이 반추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한 자료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사실과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중국 동북지방에서 독립운동, 특히 항일무장투쟁에 투신했다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희생·산화한 용사, 그리고 일본군의 야만적인 학살만행과 탄압·폭행 등으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애국지사와 무고한 한인들의 넋을 달래고, 우리의 옷깃을 진지하게 여미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 6.

이하 원문을 소개한다. 현대어법에 맞게 필자가 약간 수정한 사실을 밝힌다.

故 金雲亭 同志 逝世 1周年 紀念날 靈前에 告함

嗚呼라! 歲月이 빠르도다. 同志가 우리를 버리고 좋은 곳을 찾아간 제 벌써 돌이 되었구나. 이 날을 뒀한 아우의 心腸 어떠할까? 半白年 同志의 하던 일 歷歷히 生覺된다. 強盜 倭놈에게 錦繡江山 우리 祖國 一朝에 強奪當하고, 先塋墳墓 一家親戚 情든 故鄉 離別하고, 山川설고 風俗다른 南滿洲를 바라보고 鴨綠江을 건너올 제, 그 抱負가 무엇일까? 잃은 祖國 恢復하고 塗炭에 빠진 우리 同胞 強盜 倭놈세운 鐵網 하루바삐 벗기려고 言語도 不同하고 衣食도 다른 곳에 먹는 것은 강낭밥, 자는 곳은 수수대집, 이런 困難 克服함은 兄 아니면 못할터다.

때마침 돌아왔다. 3·1運動 일어났다. 桓仁城 內에서 朝鮮民族運動 團體 朝僑公會를 組織하여 獨立萬歲 高唱하라 坊坊谷谷 宣傳하여 1人도 빠짐없이 全世界를 震動함도 兄 아니면 못할터다. 通化縣北 哈尼河에 新興學校 建設하고 安東까지 專

往하여 靑年子弟 募集하며 革命同志 養成함이 兄 아니면 못할터다.

上級の 指示받아 南鮮까지 遠行하여 軍資金 募集 努力할 때 倭警놈의 耳目 避  
해 或 山으로, 或 들판으로, 露宿하며 지내다가 三千餘里 먼먼 길을 徒步하여 돌  
아올 때 鴨綠江 물길은 물을 水泳하여 逃生함은 兄 아니면 못할터다.

統義府와 義軍府間 同志戰爭 할 적에며, 國民府와 參議府간 團體衝突 지낼 때  
도, 四方에서 형 보기를 眞正하던 革命家가 다 特別是非 아니하니, 등글고도 寬大  
함은 兄 아니면 못할터다.

9·18事變 後에 東北에서 抗日할 때, 惡毒한 日滿軍警 밤낮없이 쫓을 적에 山掘  
파고 지내는게 한해 두해 아니어든, 그 苦生과 그 困難을 疑心없이 克服함은 兄  
아니면 못할터다.

滿洲 各地 散在하던 各黨 各派 統一하여 東北抗日聯軍으로 한 團體 組織함은  
兄아니면 못할터다. 萬難克服하였으며, 끝까지 堅持함은 형 아니면 못할터다. 不  
幸하게 黃正性의 奸計에 빠져 倭놈에게 被捉되어 7·8년간 辛苦함은 兄 아니면  
못할터다. 祖國위한 先烈熱精 許多革命 우리 同志 피흘려서 結晶으로 乙酉 8월  
15일에 强盜倭놈 降伏하자 世界的으로 弱小民族 우리 朝鮮 白衣同胞 倭놈鐵網 벗  
어나서 自由解放되었도다! 漢奸 惡霸 肅清하며 土地改革 實施하여 孫中山(孫文 -  
필자)의 耕者有其田原則따라 滋味있게 進展하며 祖國建設 積極努力 우리 할 일  
 많건만은 30餘年 惡戰苦鬪, 끝 못보고 죽다는 말, 이에 대답할 말 있을가?

嗚呼痛哉! 嗚呼哀哉! 庚申 7月 15일에 桓仁 南區 大荒溝에서 許多한 同志 많지  
만, 特別誓約하는 일은 歷歷하게 生覺된다. 陽城后人 李成達과 晋州后人 姜壽永과  
慶州后人 金奭鴻과 達城后人 徐正海와 誓同生死盟約한 일 어제같이 紀憶된다. 時  
勢에 몰렸는지 命運에 맞혔는지 第1次로 成達同志 新賓2區 夾皮溝에서 銃下 孤魂  
되었으며, 第2次로 壽永同志 吉林城內 쓸쓸한 곳에서 永遠 길을 밟았으며, 第3次  
로 우리 兄님 新賓2區 姜家街에서 不故의 客이 되었으니, 前日盟誓 所用없고, 誓  
同生死 굳은 盟約 어찌 實施 못하는가? 目的한 우리 革命 成功못한 原因이다.

嗚呼痛哉! 슬프도다! 永遠하여 아니올 길, 차마 어찌 간단 말인가? 第上에는  
八寸 老母, 膝下에는 어린 弱兒, 어찌 그리 無情하게 一朝一夕에 간단 말인가? 저  
나라에 緊急하게 國家建設하러 하여 人員不足되었으므로, 그리 急히 달려갔나?  
已往之事 갔는 비는 未盡한 일 근심마소. 兄님의 하던 革命, 이 아우가 繼續하여

期必成功할 터이니, 念慮마소 근심마소.

兄의 몸은 비록 죽어 黃土配合되었지만, 이름만은 千秋流芳 새파랗게 살아 있다. 此生에서 未盡恨을 우리 成功한 後에 彼生가서 다하기로 빌고 빌며 그칩니다.

西紀 194 年 陰 5月 26日  
志弟 達城后人 徐世明은 哭告



